

청년 10명 중 9명 “취업 지원정책 도움 안돼”

市, 416명 설문조사...10명 중 6명 취업 위해 타지역으로 67% “취업이 가장 심각”...눈높이 맞는 일자리 창출 시급

목포지역 청년 10명 중 9명은 목포시의 취업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취업 및 구직을 위해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목포 청년 416명(남자 230명, 여자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취업과 구직’이라고 답했다.

목포시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일자리(취직, 이직 등)를 27.6%를 꼽아 가장 많았다. 학업 및 진로 21%, 경제적 문제 20.4%, 계속적 성장 10.2% 등이었다.

선호하는 일자리는 응답자의 16.6%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꼽았다. 교육 서비스업(12.5%), 예술·스포츠(9.6%), 보건업(9.4%), 공공 및 사회보장 행정(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년 10명 중 9명은 목포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이다”(47.1%)가 가장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29.5%), ‘전혀 그렇지 않다’(13.4%) 까지 포함하면 90%가 목포시의 취업 지원 정책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포시 청년정책이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보통이다’(47.4%), ‘별로 그렇지 않다’(33.2%), ‘전혀 그렇지 않다’(11.3%) 등으로 답해 청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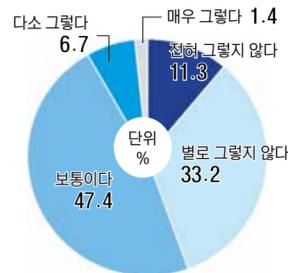
이 때문인지 ‘목포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8.7%에 달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목포지역 청년들의 52.9%는 ‘취업할만한 일자리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었고 56.9%는 ‘취업 및 구직 문제’로 목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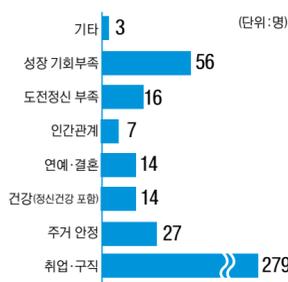
결국 청년들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다.

청년정책 수립 시 가장 우선돼야 할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56.8%), 중앙부처 연계 사업 추진(8.2%), 전담형 청년 인턴 사업, 대학생 창업 보육센터 지원 등을 꼽

■ 청년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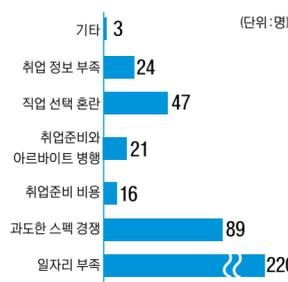
■ 현재 겪는 심각한 문제



■ 일자리 창출



■ 취업준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릿해 청년 펀드 조성, 목포형 청년카드 도입 등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대양산단 외국기업 투자 물꼬

일본 식품회사 70억원 투자 중국 사면시도 큰 관심 보여

목포 대양산단의 외국 기업 투자가 물꼬를 뿜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일본 식품 회사인 아사쿠라 노리텐은 대양산단에 70억원을 투자해 수출용 조미 김, 조밥용 김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 23일 박홍을 목포시장을 만나 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측은 건축 설계와 금융기관을 모색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신고 절차를 거쳐 공장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시와 자매 도시인 중국 사면(廈門)시에서도 대양산단에 관심을 보였다. 최근 목포를 방문한 사면시 대표단은 대양산단을 시찰하고 김 가공업체를 방문해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사면시 대표단은 중국과 가까운 입지 여건 등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고 목포시는 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는 KTX, 신항, 무안국제공항 등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돼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에 좋다”며 “일본 기업을 시작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양산단은 50개 기업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 분양대상 107만㎡ 중 42만㎡가 분양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조기 풍어에 북적이는 목포항

1억 이상 위판 어선 한달새 40여척 달해

목포항이 오랜만에 찾아온 조기 풍어로 북적이고 있다.

3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최근 목포 앞 바다는 추자도와 흑산도 해역에서 조기 잡이가 시작되면서 조기 풍어를 이루고 돌아온 어선들로 가득하다.

지난달 30일 목포수협 위판장에는 85척의 조기 어선이 위판됐으며 103억(29%)의 경우 1 항차 만에 3억2000여만 원 어치의 조기잡이를 위판,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1억원 이상 조기 잡이 업자만 어선도 40여 척에 달하는 등 대부분 선박이 조기를 가득

참조기는 담백한 맛이 일품으로 특히 추자도와 흑산도 인근에서 잡힌 조기는 깊고 청정한 바다에서 자라 씨알이 굵다.

조기는 갈치와 함께 목포수협 위판고를 좌우하는 핵심 어종이다.

목포 인근에서는 몇 년 전까지 누런 빛깔 조기들이 풍어를 이뤄 바다에서 황금을 캔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어획량이 급감해 어민들의 한숨이 깊었다.

목포수협의 지난해 조기 위판량은 5229t으로 2015년(8482t)보다 38.4% 줄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조기 풍어로 목포 선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고 전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해 주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정부에 공동건의문 전달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는 최근 목포 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남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9개 자치단체를 대표해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를 방문, ‘목포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는 지난 10월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목포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사업을 정부 향

만기분회계과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목포신항 직선화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전남지역 고속도로를 경유해 물류를 수송하는 차량이 목포신항으로 진입하는 직선 도로를 개설, 사고위험을 줄이고 운송시간을 단축해 목포신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항만운영 우수사례 혁신대회 목포해수청 공공부문 우수상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열린 해양수산부의 ‘2017년 항만운영 우수사례 혁신대회’에서 용당부두 개선사업으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해양수산청은 ‘목포항 용당부두, 관성의 법칙을 깨다’라는 주제로 안전사고 우려, 취약한 항만보안 문제 등 용당부두 개선 사업을 추진, 우수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목포해수청은 선석 확장공사와 신규 야적장 포장 및 구획으로 연간 6000만원의 물류비를 줄이고 부두 내 불필요한 적치물들을 정리하는 한편, 출입구를 일원화해 항만 보안도 강화했다.

모래부두도 훼손된 방진망을 정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공을 들였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용당부두 개선사업을 계기로 효율적 항만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빛의 정원이 들어서는 목포 평화광장 일대.

평화광장에 ‘빛의 정원’ 만든다

하당권 상권 활성화 도움 기대

목포시 평화광장에 빛의 정원이 조성된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평화광장

무대 옆 정원에 2억5000만원을 들여 ‘연인의 거리’와 ‘커피의 거리’ 컨셉에 맞는 ‘빛의 정원’을 조성한다. 목포시는 LED를 활용한 빛의 정원이

조성되면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할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어 하당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는 빛의 정원은 정원에 식재된 나무를 재활용하고 구역별로 테마를 설정, LED 조명으로 꾸미고 캐릭터와 포토존도 설치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H 010-9229-3530
062-5 3 1-3530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지원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한국전력공사 선로제공!!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